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동권 제64호 [매달]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6년 6월 1일 발행인 : 정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경양주채독 B/D 5층 T. 2208 3500(☎)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디지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92 5323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융합된 '디지로그'가 한국의 희망

머릿글 (사)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 김재원

6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인호

커버스토리 중앙일보 고문 이어령

리더십이야기

지자체특강 (주)SH45회장 홍수환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대불대학교 음악과 교수 임미경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회원광장 베로니카 카스 코리아아카데미 원장 오경근

중국 길림성 새마을교육

조순칼럼

표지인물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사진 오경근 원장

2006 June

6

1등과 30등의 차이

세계건설과 한국건설의 차이, 규모가 아니라 전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스웨덴의 스칸스카는 작은 시멘트 제조회사로 시작했지만
 건설전문화의 한 길을 걸으며 세계 제일의 건설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벡텔 역시, 건설덤프트럭 회사로 출발했지만,
 건설 외길로 세계 정상의 건설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재도약의 길, 건설전문화에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 인정을 받은 우리건설의 시공능력에
 기초소재에서 기획, 설계, 개발, 건설금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와 전문화가 더해진다면
 한국건설 세계 1등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세계 30위권의 대한민국 건설이 세계 제일로 가는 길 -
 건설전문그룹 유진이 앞장서겠습니다.

건설전문그룹 - 유진 
EUGENE

유진은 창사 이래, 건설소재 분야에서 연간 30%의 고성장을
 이룩하고, 자산 1조원을 넘는 기업 중 100%이하의 낮은
 부채비율을 실현한 업계 정상의 초우량 기업입니다.



1009번을 거절당한 사나이를 아십니까?

김재원 (사)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

거절당하기 세계 챔피언

커넬 샌더스를 아는가? 전세계 100여 개 국가 30,000여 개가 넘는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맹점 문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나이.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분장된 이 사나이. 흰 양복에 스틱을 팔에 걸친 이 사나이가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이다.

그는 '거절당하기 올림픽'이 열린다면 마땅히 금메달 감이다. 자신이 만든 닭고기요리 사업제안서를 들고 다니며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으니까. 거절에 관한 그 이상의 기록은 없는 것 같다. 하루 두 번씩 거절당했다 쳐도 무려 42개월 동안을 매일 거절당한 셈이다. 그래서 샌더스의 전기작가들은 그가 2년 6개월 이상 오직 "아무 일도 안 하고 거절당하는 일에만 종사했다"고 써야 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프랜차이즈 아닌 사업이 없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나 편의점, 할인점 말고도 아날로그시대에 탄생한 학교나 은행, 우체국, 슈퍼도 프랜차이즈이기는 마찬가지이다.

1978년 롯데리아 1호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도 2005년 말 현재 2,211개의 가맹 본부와 280,000개의 가맹점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61조에 달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했다. 1954년에 맥도날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의 프랜차이즈는 역시 대국답게 그 규모도 엄청나다. 맥도날드 하나만 놓고 따져도 미국 인구 가운데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력자이며, 매년 1백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그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65세 은퇴할 나이에 시작한 사나이

그러나 1,009번을 거절당한 사나이 커넬 샌더스는 맥도널드가 처음부터 소유했던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다. 1890년 생인 그는 여섯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그와 여동생들을 버리고 재혼했다. 그의 나이 열두 살 때였다. 가난한 소년 샌더스는 '철모르는 계집애 동생' 둘을 데리고 열두 살 때부터 생존을 위해 오만가지 힘든 일을 마다 않고 따라다녀야 했다. 철도 소방원, 보험 세일즈맨, 유람선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 거친 일도 마다 않고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르게 65세를

헐떡거리며 살아 왔다.

1940년대 중반에는 음식점 경영도 해서 성공하는가 싶었다. 이제는 다리 펴고 사는가 했는데 1950년대 초 그가 경영하는 식당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그의 주요한 고객들은 개통된 고속도로 건너편에 살게 되었다. 샌더스의 식당은 경매에 넘어가고 요즘 말로 거지가 된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였다. 거지가 된 그의 손에는 미합중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빈민들에게 배겨주는 105달러가 전재산이었다.

그는 전재산인 105달러로 다시 시작한다. 자신이 개발한 닭고기요리 샘플을 만들어 낱아빠진 차로 미국 전역을 횡단하며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와 요리기술을 이해해 줄 식당을 찾아다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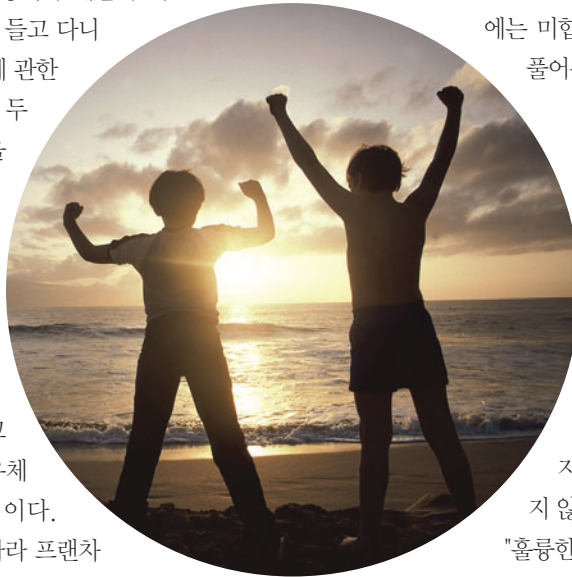
'Better World'를 만드는 사람들

1,009번의 거절 체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거절당하고도 커넬 샌더스는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남들이 포기할만한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애썼다"

우리보다 먼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여간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절을 당한다고 물러섰다면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의 몇 분지 1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중에 봅시다." "관심 없는데요." 등의 약박한 거절의 말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현재 '프랜차이즈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발전을 이끌고 돕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커넬 샌더스 같은 징그러운 사람을 가끔 만난다. 그렇게 거절당하고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과 리더십이 진짜 'Better World'를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人間)



김재원 회장

1939년 생 /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 / 중앙일보 기자, 편집국 주간부장, 여성부장, 학생부장 / 동양방송(TBC) 방송위원 / 월간 '여원', '직장인', '신부' 등 8개 잡지 발행인 / (사)한국잡지협회 부회장 /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프랜차이즈신문 회장(주필)

6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 美 코넬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법제조사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美 Columbia Law School 법경제학연구소 초청연구원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 美 Brookings 연구소 초빙연구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석좌교수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의회위원장 / 제17대 국회의원
<상훈> 한국경제학회 청남상, 국민훈장 모란장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법경제학,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공저) 외

대한민국 선진화, 비전과 전략

1455회 6월 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대한민국은 건국의 시대를 거쳐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지난 6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사이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전 세계의 성장모델로 주목받을 만큼 빛나는 성공시대를 거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우리 앞에 닥친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신빈곤층 증가, 분열과 갈등, 혼돈과 좌절 등으로 인해 저성장의 뒷에서 빠져 나올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여기에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새관 짜기 등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도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구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올바른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및 정치권이 혁신을 전제로 비전과 철학을 세우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이 15년 이내에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사회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자기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박세일 교수를 초빙하여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선진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규 前 대구대학교 총장

서울대 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경북대 경영학 박사 / 영진약품공업(주) 이사 / 대구경북경영학회 회장 / 한국국제경영학회 부회장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대구대학교 총장 / 한국전기조사 사외이사 / 대구방송 사외이사
<상훈> 전경련 출판문화상, 대구대 학술상, 대구대 우수연구상
<저서> 피터 드러커 평전, 경영학원론, 빅뱅 경영, 노키아스토리 외

피터 드러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1456회 6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피터 드러커가 타계한지 7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2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클레어몬트데에서 "드러커의 유산(The Drucker Legacy)"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다.

우리가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를 지식경제시대로 규정하고 경영자와 지식근로자들의 책임과 임무를 강조하면서 각각의 개인들이 일과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경영학을 '인간을 잘 살도록 만드는 학문'으로 정의한 드러커는 연구대상을 효율성보다는 그 주체인 '사람'으로 삼았다. 드러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그의 책과 생각이다. 그러나 드러커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 즉 성실성이 아닐까 한다. 드러커는 자신이 주장한 목표관리와 자기관리 개념을 95년이라는 삶을 통해 충실히 실천했다. 이에 드러커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드러커와 관련한 서적 출판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규 전 대구대 총장을 초빙하여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의 구루(guru)'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삶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호진 세종대학교 이사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美 하와이주립대 정치학 석·박사 / 美 하와이주립대 정치학과 강사 /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문제연구소장, 노동대학원장, 명예교수 / 케임브리지대학 교환교수 / 베를린자유대학 교환교수 / 한국정치학회 회장 / 경실련 고문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 장관 / 교육부 사회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상훈〉 청조근정훈장
〈저서〉 대통령과 리더십, 한국정치체제론, 노동과 민주주의의 외

성공한 국가경영자의 리더십 조건

1457회 6월 15일 서울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리더십의 기본은 무엇보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몸을 낮추고 양보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리더십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功)의 측면과 과(過)의 측면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국정은 항로 잃은 선박처럼 표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경영자는 항해사가 항로를 알고 있어야 하듯이 비전과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경영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도자로서 책임윤리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또한 나름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며 대권을 잡았다. 콤플렉스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다. 이에 이제는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을 계속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해 노동부 장관 시절 '원칙론자'로 불렸던 김호진 세종대 이사장을 초빙하여 최근 출간한 책 <대통령과 리더십>을 통해 성공한 국가경영자의 리더십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람중심경영과 노사관계

1458회 6월 2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늘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제도적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자원 관리와 노사관계 분야의 혁신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으로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발전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리 기업환경에 맞는 인간중심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정보와 지식에 의한 경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긴 하지만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구체적 산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설 <상도>에서는 "장사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간중심경영에 힘을 기울인다면 뿌리깊은 노사의 대립도 사라지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노사관계 등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원장을 초빙하여 기업경영에 있어 사람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경영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텍사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부원장 /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 /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상훈〉 동탑산업훈장
〈저서〉 한국형 노사문화 정착과 복지국가(공저), 인적자원의 확충과 보호(공저),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외

황해경제권과 떠오르는 아시아의 용

1459회 6월 2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세계경제는 이제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지역간의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그 중 중국 동부 해안지역과 한국의 서해, 그리고 일본의 큐슈지역을 연결하는 황해경제권은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황해경제권은 2001년 기준 2억의 경제활동 인구가 더불어 GDP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경제소비 능력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그 중심에 송도신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이곳에 2013년까지 약 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으로 영종도, 청라지구와 함께 인천의 3대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의 경제, 문화 중심도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송도를 만들겠다고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피에트로 도란 회장은 황해연안을 연결하면 포효하는 용 모양을 그릴 수 있다며 황해경제권을 '떠오르는 용'으로 부르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로서 송도신도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피에트로 도란 회장을 초빙하여 황해경제권의 발전 구상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피에트로 도란 도란 캐피탈 파트너스 회장

매사추세츠주립대 금융학과 졸업 / 매사추세츠공대(MIT) 부동산학 석사 / 1996년 존버컴 퍼니 설립 / 모건스탠리 프로퍼티즈(커니 글로보코리아) 사장 / 게일 인터내셔널코리아 사장 /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 운영 파트너 및 한국지사 상임고문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지적사회와 문제인식능력

나는 우리사회가 소위 지적사회가 갖추어야 될 특성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 OECD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식능력을 크게 Know what(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Know why(문제 발생의 원인과 배경),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고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정리했다. 이러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사회가 바로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문제의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한다. 늘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내수침체, 부동산문제, 환율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노사, 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에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의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능력의 한계,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의 오류가 있지 않은가 싶다. 사람들이 갖는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에 대한 단기적 관심에서부터 몇십 년 후의 전망에 관한 관심이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가 97년에 겪었던 경제적 위기를 또 다시 겪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이 두 가지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갖는 문제인식능력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금년 신중한 낙관론 우세하지만 정확한 경제예측은 불가능 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국의 경제상황은 잘 아는 것처럼 2003년 3.0%, 2004년 4.6%, 2005년 4.5%를 기록했으며, 금년은 5%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경제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보다 그렇지 않은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이 많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어느 누가 하더라도 정확한 경제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결코 우리의 경제예측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적인 예측 및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예측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년도 전망을 한다면 아직은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하지 않은가 보여진다. 그러나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KDI가 금년도 경제전망을 5%에서 5.3%로 상향조정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러한 향상기류가 하반기 이후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적어

놓았다. 이 말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의 기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비교적 낙관적 전망이 언제 비관적 전망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관찰해 보면 어느 경제나 그렇듯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은 IT, BT, NT분야에서 갖는 강점과 가능성이다.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가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서 저생산부문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 부분에 변화가 온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류열풍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다. 높은 교육열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또한 브릭스(BRICS)가 우리에게 제공할 무한정의 시장규모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경제는 구조적으로 밝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어두운 면들도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농업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저생산성 서비스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하향추세, 기업들의 투자욕감소,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심화되어 가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위험요소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우리경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공존한다. 그렇기에 양쪽 면을 다 볼 줄 아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위험요소가 되는 어두운 면을 기회의 요소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내다봄에 있어서 계량적인 전망을 많이 한다. 산업연구원에서는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이라는 장기전망을 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평균 4.6% 성장에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5천 불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어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했다. 다만 우리 원화가 700원대까지 절상될 것이란 전제가 포함된다. 하지만 경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데 있어서 계량적 전망은 별 의미가 없다. 전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에 포함되는 전제와 가정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 숫자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를 오래 연구하면서 경제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굉장히 심플하다는 생각을 한다. 인터넷에서 우스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어느 한 임금이 나라의 학자들을 전부 불러모은 뒤, 세상을 사는 진리에 대해 연구해서 바칠 것을 명했다. 수많은 학자들이 방대한 연구 끝에 책을 저술하여 바쳤다. 그러자 임금이 그것을 요약하여 다시 바치라고 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끝에 임금은 최종적으로 한 줄로 요약할 것을 명했다. 이에 학자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로 최종 요약하였다. 임금이 이번에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전망을 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종 한 줄로 요약하라고 명하자 학자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진리가 있는 말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이 너무 많다. 그리고 콩을 심어 놓고는 팔을 기대하고, 팔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요즘이다.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과정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두운 미래를 맞을 것이다.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우리사회는 위기구조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위기의식이 발생했다가 소멸되기를 반복한다. 경제가 잘 풀릴 때는 위기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가도 경제가 안 풀리면 경제위기라며 아우성을 친다. 어떤 언론인은 이것을 가리켜 '위기의 재생산구조'라고 했다.

몇 년 전 작가 최인호씨가 쓴 상도라는 책을 읽었다. 상도는 250년 전 실존했던 임상옥이라는 거부에 관한 이야기이다. 임상옥은 어릴 적에 중이 되려고 절에 들어가서 도를 닦다가 맘을 바꾸어 상계로 나오게 된다. 이 때 임상옥의 큰 스승이 예언과 경계를 하는 장면이 있다. 스승은 그에게 상인으로서 대성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과 함께 그 과정에서 맞게 될 세 번의 위기에 대해 말해 준다. 첫 번째 위기는 그가 위기인 줄 알고 맞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인 줄 모르고 맞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기를 위기로써 인식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헤쳐 나갈 길이 있게 마련이지만 위기의 성격을 잘 모르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가 정말 위험한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한다.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다. 성공이 가져오는 위기 즉, 성공에 안주할 때 바로 그때가 정말 위기이다.

인식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 국민, 언론 등 너 나 할 것 없이 위기의 성격을 '외화유동성의 위기', 쉽게 말해 달러부족에서 온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일 년 반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IMF 지원금을 원래의 상환계획보다도 일찍 상환하게 되면서 동시에 IMF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공식선언을 2002년에 했다. 이런 인식을 둔 배경은 바로 IMF위기의 성격이 외화유동성 위기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나는 IMF위기를 국내적, 국제적, 구조적, 상황적 네 가지 측면 소위 매트릭스 구조에서 접근해야만 그 성격이 제대로 규명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IMF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다. 그 구조적 위기의 배경은 한국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무너진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유동성의 부족은 이러한 구조적 또는 신뢰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이지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IMF는 무엇이 문제의 본질이고 결과인지를 혼동한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그 뒤에 전개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정책에 엄청난 오류가 왔다. 우리의 경제정책에 있어 제일 잘못된 정책이 외환정책이다. 당시 IMF가 달러부족으로 인해 다친 위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달러를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당연히 원화가 절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2004년 하반기까지 1200~1300원대 환율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

를 위해 많은 노력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감으로써 우리경제에 구조적 왜곡을 가져왔다.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 부문간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과거 몇 년 동안 실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가공의 경쟁력이라고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동안의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부분은 실제 우리 경쟁력에 바탕을 두어 달성된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당부분이 정상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진작 서서히 내려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IMF외환위기가 달러부족 때문에 왔으니까 우선 달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달러를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출과 연계되고 정부의 경기확대정책에도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들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 온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의 침체, 부문간 경제적 성과의 엄청난 격차, 급격한 환율 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 경기적 현상이 아닌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

최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경제가 다시 호조를 띠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신문에 일본경제가 세계2차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지난 달 말 경제물가정세를 전망하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경기상승이 과거 황금시기를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약 99%는 일본경기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와세다대학의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경제가 현재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일본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다. 둘째,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전장준비체제인 일본경제가 소위 40년 체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전망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그는 지금 일본경제의 호황이 중국특수 때문에 오는 착시현상이라고 했다. 80년대 말부터 전개된 세계 경제의 변화를 크게 보면 구 공산권의 시장경제로의 편입과 IT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일본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무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 전신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금융체제는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 위주로 모험 자본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이 거품도 많이 빼고 개혁도 많이 했다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일본이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등 신흥공업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비교우위를 유지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지금은 그러한 국가들이 일본 것을 많이 사다가 경제복원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겠지만 조만간 시장을 다 뺏기고 말 것이

라고 경고했다. 한국도 그 점에서는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서 일본경제가 훨씬 더 소프트화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적재산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일본경제가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물론 일본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똑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경기적 시각에서 보는지 혹은 구조적 시각에서 보는 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식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은 단순히 경기적 현상이 아닌 일본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현상이었음을 인식할 줄 아는 투철한 인식이 부족해서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 인식의 위기

우리 경제에 만약 위기가 온다면 '유동성 위기'가 아닌 '경쟁력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경제의 어두운 측면인 구조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경제의 밝은 면을 살려 나가기는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경제의 경쟁력이 서서히 침하되어 간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임상옥의 스승이 임상옥에게 두 번째 위기가 올 때에는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고 맞기 때문에 진정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경제의 위기도 그런 형태로 올 것이라고 본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실패할 경우 우리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아닐까 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첫째 '경쟁력의 위기', 둘째 '시스템의 위기', 셋째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근본 '인식의 위기'이다.



(표1)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추이

각 분기별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그린 표(표1)를 보면 2000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등락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점차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도 1사분기 잠정치로 6.2%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 2005년 1사분기에는 2.7% 성장했다. 그 때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높게 나올 뿐이고 2사분기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내년 이후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금년까지 지탱되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상승기류는 금년 하반기를 고비로 해서 꺾일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재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내년 이후가 그렇게 밝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요지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5개 부문 25개 과제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과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요컨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의 다음 번 문제는 시스템의 위기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이슈는 경쟁력의 문제이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고 본다.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은 결국 시장경제이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시장적 접근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접근방법을 써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요새 부동산 정책을 보거나 교육문제를 보더라도 그렇다. 결국 교육문제에 있어서 경쟁적 요소와 수요자 선택의 원리를 배제하고서도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해결될까? 그것이 결국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부터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본질적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경제 만드는 것이 과제

우리 경제의 과제는 이러한 본질적인 위기로부터 어떻게 자유스러운 경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국가운영의 틀을 재구성하는 길밖에 없다. 글로벌스탠더드를 충분히 수용해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이루어야 앞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의 강인성과 유연성이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식이 아닌 세계식의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식대로 살면서 잘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두 번째는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또 부문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경제와 비경제 분야에 있어서 국정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그 경제는 결코 제대로 될 수 없다. 물 흐르듯 하는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 경제가 정부의 인위적인 왜곡에 의해서 뒤틀리면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게 된다. 경제의 외형적 성과보다도 구조적인 문제의 중요성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든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성공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과 여론도 함께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인식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문제인식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극복하게 된다면 더 나은 경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人間)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융합된 '디지로그'가 한국의 희망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사진 오경근 원장

이어령 고문

1934년 생 /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 서울대 국문학 석사 / 단국대 국문학 박사 /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로 등단 / 이화여대 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 /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논설위원 / 초대 문화부 장관 /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 사이언스 북 스타트업 공동대표

1960년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통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야 함을 역설했고, 1970년대 '신바람 문화로 좌절에 빠져 있던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고, 1980년대 '벽을 넘어서'로 남북분단과 동서 냉전의 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화합을 이야기했으며, 199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로 IT를 기반으로 한 한국이 글로벌 정보 사회의 리더가 돼야 함을 역설했던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이 2006년 '디지털(Digitlog)을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가 만든 시대별 키워드와 슬로건은 당시로서는 황당하게 들렸겠지만 결국 모두 실현된 것들로 미래 한국의 지향점을 '디지털'에 뒀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즉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치자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새로운 것이 하나가 되는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사회는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행복하게 융합돼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이라는 첨단기술에 인간적인 아날로그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이 후기 정보화 사회의 선두주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의 양극화와 여론의 쓸림 현상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선 기술은 빛이 아니라 그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56년 '우상의 파괴'로 등단한 뒤 자신을 따라 다니는 수많은 호칭 중에서도 여전히 문학평론가로서의 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이어령 고문을 만나 디지털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향후 한국사회가 주도해나갈 디지털 시대를 전망해 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먼저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디지털을 처음 얘기한 것은 중앙일보 신년시리즈 연재를 부탁 받으면서입니다. 신년 덕담을 하는 글이었는데, 덕담이란 원래 나이든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히 비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를, 그리고 과거사가 아닌 앞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의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이었죠.

디지털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결코 별개의 개념이 아니죠. 숫자 0과 1로 이루어진 모든 디지털 기호들도 우리가 접할 때는 그림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 둘을 구분하고 대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날로그는 낡은 것이고, 디지털은 새로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한국이 후기 정보화사회의 선두주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격차, 정보의 양극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립으로 인한 이념논쟁, 여론의 쓸림 현상 등이 계속

된다면 우리의 앞선 기술은 빛이 아니라 그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디지털을 선창하게 된 것도 디지털문화와 아날로그문화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에서죠. 결국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분석해 보면 디지털은 하나의 유행어가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디지털이라는 말이 첨단기술 제품이나 옛 감성을 담은 상품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디지털을 대표하는 일반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웨덴의 아노토사가 개발한 '아노토 펜'은 펜촉 옆에 달린 카메라 센서가 종이 위의 아날로그 글씨를 인식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디지털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팟(iPod)도 디지털적 발상에 의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의 개별 상품이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사례는 더욱 다양합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끈끈한 친화력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른 한국야구와 우리 고유의 '사이문화'에 문화마인드를 결합한 '싸이월드', 아날로그의 사람들이 매일 업데이트하는 디지털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인', 셔터소리와 수동기능을 갖춘 디지털카메라 등은 우리 시대 대표적인 디지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가 아날로그 기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문화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지요.

IT의 선두주자는 미국이었지만 디지털 강국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IT기술 인프라와 융통성 있는 사회분위기, 집중과 신바람의 한국적 국민성이 낳은 결과죠. 디지털 문화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쌍방의 세계입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 휴대폰, 대화상대가 없는 메신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전화로는 하지 못할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정(情)의 민족이기 때문에 디지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쌍방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후기정보사회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젓가락 문화나 비빔밥 등 우리의 언어, 문화에 녹아있는 디지털 정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정서는 지금까지의 IT기술을 RT(Relation Technology, 관계기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사회가 향후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요소나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디지털은 우리사회에

적합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시루떡을 돌리며 소식을 알렸던 한국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차가운 인터넷 시대에는 절실히 필요해요. 초가지붕에 내린 눈처럼 온 동네를 하얗게 뒤덮는, 시루떡에 실려온 작고 반짝이는 정보가 한국인이 만들어 가야 하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원천인 셈이죠. 인터넷 전자메일 주소를 표시하는 골뱅이(@)도 그렇습니다. @를 '엣 사인'이라 부르는 미국인들의 디지털적 논리와 비교하면 한국의 골뱅이는 시골의 맑은 시냇물을 연상시키는 시각에 찌개의 얼큰한 미각까지 느끼게 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의 산물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 남아있는 이런 아날로그적 특성이 바로 디지털을 가능케 하는 비옥한 토양이죠. 가장 좋은 디지털이란 감성적이고 따뜻하며 인간적인 아날로그적 특성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오늘의 인터넷 강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T인프라나 하드웨어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한다면 진정한 정보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디지털은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명제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21세기는 문화의 정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디지털과 문화정보의 결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는 군사력과 금력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문화정보가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터넷게임, 음악, 블로그 등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죠.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군사력으로는 이겼지만 이슬람권의 문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오랜 동맹국이었던 프랑스, 독일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없다면 무용지

물이란 겁니다. 한국은 인터넷 통신망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인터넷 기반과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과 문화정보를 연결한다면 새로운 파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신년시리즈 '디지털 시대가 온다' 30회를 마무리하시면서 "뗏목을 버려라"라는 말로 끝을 맺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의 성공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사례를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걸머지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타고 온 뗏목을 버려야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니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취했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연재를 마치고 이를 다듬고 보충해서 책으로 내는 것이 제가 디지털을 그만 두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즉 뗏목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고문님의 서재에는 7대의 컴퓨터와 스캐너 등이 비치되어 네트워크 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컴퓨터를 문명의 혜택으로 생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컴퓨터는 프로그램간의 호환성 문제, 데이터 손실 및 백업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기 다른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데스



크톱 3대, 크기와 기능이 다른 노트북 3대, 화면에 그림과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태블릿 PC 1대 등 7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검색하고 정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태블릿 PC 화면에 직접 메모를 해 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바꾸기도 하죠. 2대의 스캐너로는 책을 읽다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 나오면 바로 스캔을 받아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선랜으로 네트워킹 되고 있어 지적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고의 디지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양극화 현상, 갈등과 대립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닙니다. 60년대 우리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시대에도 있었던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정보격차가 먼저 해소되어야 합니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지만 정보의 격차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빈부의 격차, 정보의 격차, 남북의 격차 등 모든 격차의 문제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어느 것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연동되어 풀리는 것인지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아보세'라는 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등과 대립의 문제 또한 우리사회에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문님께서 교수, 평론가, 언론인, 소설가, 미래학자, 장관 등 많은 직함들이 따라다니는데요. 스스로 가장 역량을 쏟은 분야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인간 삶의 일부분을 다루지만 문학평론은 그 전체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학평론을 통해 컴퓨터나 과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문학평론가로서의 활동에 가장 역량을 쏟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만 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학평론을 기반으로 소설도 쓰고 교수나 언론생활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50년 전 문학평론가로 데뷔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무엇을 하든 스스로 '창조자'였다는 점을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류사회, 하류사회 등으로 사회계층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낡은 분류법에서 벗어나 '창조적 계층'으로 사회를 구분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에게 많은 호칭이 따라다니는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동안 창조적 계층에 진입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새롭게 형성되는 창조적 계층을 만들어 가고 그곳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제 일생의 요약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것 역시 인간의 몫이라고 여겨집니까.

이에 진정한 리더 및 올바른 인재육성은 필수일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고문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이거나 저거나 하는 '선택'의 문제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사회는 지금 아버지는 '더우니 창문 열라'고 하고, 어머니는 '모기 들어오니 창문 닫으라'고 하는 집안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택만을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 여건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쪽 편을 들라는 편가르기식 교육밖에 안 됩니다. 창문 열라는 아버지와 창문 닫으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창조적 교육이 필요해요. 모기장이나 방충망을 설치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현실의 모순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디지로그의 중심에 서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문에 연재된 30회분의 글을 수정·보완한 <디지로그 선언>이 최근 출간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곧 2권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2권은 '디지로그 전략' 편으로 디지로그 현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분석하는 한편 비판하는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지로그의 기업모델이나 문화모델, 정치모델 등을 만들 수 있는지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대안으로써의 정책과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문님께서도 그동안 감사로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강연한 것이 7회 정도 되는데, 첫 강연이 1984년으로 기억됩니다. 1997년에는 경영자연구회 1000회 강연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서기도 했죠. 그 동안 인간개발연구원은 꾸준한 한길만을 걸어 오면서 유사기관이 따라오지 못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역사적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모델을 디지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특화시키고 그 중에서 디지로그적 아이디어를 가진 모델을 향후 연구원의 지적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문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리더십을 공부하는 연구원장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LMI에서 제공하는 좋은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한 번 생각해 보죠. 먼저 소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연구원장의 결단력으로 시작된 교육
매주 화요일은 공부하는 날,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영기 원장과 이렇게 시작된 리더십 이야기가 결실을 맺는 데는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난 해 말 연말연시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이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LMI의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 EPL)'의 4대 특징이 자신감, 결단력, 집중력, 실천력인데 최 원장은 일단 결단력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처음

로 본격적인 리더십을 공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원장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보직자 전원과 선임 박사들이 참여하여 10명으로 한 팀이 구성되었다. 드디어 16주 과정의 EPL 여정이 시작되었다. 최 원장은 첫 시간,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남들을 많이 가르치고 지도해 보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리더십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라고 강조했다.

국책 연구원장은 원래 바쁜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위원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강연요청과 원고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서 항상 시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주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그는 리더십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화요일 오후는 공부하는 날로 정해 100%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에 2시간씩 리더십을 공부했다. 그는 모범적으로 숙제를 해오며 출석 수범을 보였다. 원장이 직접 참여하니까 나머지 참가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날도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교육

장으로 달려오으로써 구성원들을 놀라게 했다. 역시 리더는 다르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대화가 공유되고, 중간목표를 실천하면서 학습효과 상승 23개 연구기관 평가에서 1위 차지하며 교육 탄력 받아

다른 곳에서의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박수치기와 적자생존을 강조했다. 숙명여대에서 총장팀을 진행할 때처럼 첫 시간에는 박수치는 것이 무척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익숙해져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보냄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금방 바뀌었다. 매주 학습이 시작되면 '굿 뉴스 시간'으로 포문을 열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역시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굿 뉴스 시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가족간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탄 이야기, 가족과 함께 간 여행 이야기 등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대화들이 공유되면서 교육은 더욱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매주 베스트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시간에 점점 익숙해져 서로가 몰랐던 인간적인 면들을 알게 되면서 학습효과는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얘기할 때는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가 난상토론이 가능한 조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최 원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한 덕택이다. 특히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솔직하고 순수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돋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드는 조직이었다.

리더십 과정의 백미는 주간목표 설정이다. 매주 개인목표와 업무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달성여부를 검토하는 체계이다. 최 원장은 경제, 사회, 건강, 가정, 지적, 정신면의 인생 6대 영역 중 사회면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그래서 사회면부터 개인목표를 잡아나갔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을 반드시 칭찬한다." 등 칭찬경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나니까 "정말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초등학생처럼 해맑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그리고 박사들과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스스로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공부한 것을 바로 실행하는 데도 뛰어난 실천력을 보여주었다. 사실 리더십은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교육기간 중에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다.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3개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데 노동연구원이 1등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굿 뉴스 중의 굿 뉴스가 아닌가. 지난 해 평가 점수가 낮았기에 기쁨은 배가되었다. 평가결과가 알려지면서 학습시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최 원장은 "보직자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들이 한 번 해보자는 단결력을 보여 준 덕택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받은 것

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하면서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적자생존은 "적는 자가 살아 남는다"는 뜻으로 연구원에서 일하는 관례로 탁월한 재능들이 있었다. 사명선언서, 감사 리스트 60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꿈과 소망 등을 적어내는 데 탁월한 정리능력을 보여주었다.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교육의 효과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 자녀들에게도 리더십 교육 시키고 싶어

리더십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수료식이다. 16주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와 졸업생처럼 들뜬 기분을 가져다준다. 수료식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분위기를 더욱 의미 있게 해주었다. 5월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의 아늑한 장소를 택해 부부동반으로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사명선언서를 읽고 교육 참가소감문을 낭독할 때는 숙연한 분위기에 감동이 넘쳐 났다. 누구보다도 최 원장의 감회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업무위주로만 생각해 왔는데 인생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게 큰 소득이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16주 동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을 주는 것이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라고 자평한다.

참가자들은 금연 성공, 헬스클럽에서 주 4회 이상 운동 실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며 가정을 중시하는 사고, 주 1회 가족과 대화 실시, 계획을 세우는 습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교육기간 중 성취된 것들이 많았다고 고백을 한다. 무엇보다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다고 덧붙인다.

참가소감문 발표가 끝나면 이어서 부인들이 가정에서 느낀 점을 증언하는 순서가 있다. 교육 참가자 입장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남편들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했다. "남편이 자상해졌고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교육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수강이라도 해서 더 공부를 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마이동풍이었는데 교육 때문에 남편이 운동을 시작해서 몸무게가 줄었어요."

유구동 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도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싶다"며 "앞으로 다른 연구기관에서 평가에서 1등을 받은 비결을 물어오면 LMI 리더십 과정을 추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방하남 박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며 "자녀들에게도 리더십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최 원장은 "이 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노동연구원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면서 아쉬운 시간을 마무리했다. **人間**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

홍수환 (주)SH45 회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개강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인재아카데미'는 본원과 인재문화원(원장 방효정)이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인재아카데미는 주민, 학생,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과 인재문화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할 뿐 아니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4월 26일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를 주제로 제7회 강연을 해주신 홍수환 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홍수환 회장

1950년 생 / 인천체대 졸업 / 1969년 프로복싱 입문 / OPBF 밴텀급 동양 챔피언 / WBA 밴텀급 세계 챔피언 /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 / 한국권투인협회 부회장 / KBS 권투 해설위원 / 공군사관학교 복싱지도 / KBS 라디오 홍수환 이승연의 라디오 챔피언 MC

제가 1950년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7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계 챔피언 두 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링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게 더 자랑스러운 거죠. 권투는 사각 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시합하는 것인데, 거기서 지는 사람이 더 큰 인생의 링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집중의 파워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인생

여러분, 1974년 7월 4일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기억나십니까? 그 때 상대방인 아놀드 테일러라는 선수가 어떤 스타일의 권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비디오 자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중에 헥토르 카라스키야와 시합할 때는 그 선수의 경기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경기에 나섰지만 아놀드 테일러와 할 때는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도전한 겁니다. 제가 훈련할 때, 남산 야외음악당에서부터 남산타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시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결국 해냈습니다. 계단만 보고 뛰니까 되더라고요. 계단이 더 이상 내 시야에 안 들어올 때 앞을 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겁니다. 시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우리 작전이 뭐였습니까. "수환아, 라운드판 보지 마라." 이게 우리 작전이었어요. '땡' 하고 공 올리면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들어와서 쉬고, 또 공 올리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웠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시합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의 파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신으로 육체를 깨워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어

그 때 당시 경기장이 있는 남아프리카 더반까지 비행기를 여섯 번이나 갈아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방'이 있다는 거죠. 나도 한방이 있다. 그래서 나는 된다. 나는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더없이 훌륭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놀드 테일러에 관한 자료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남산공원의 야외음악당에서 타워까지 한번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현지에 도착해서 첫날밤에 아놀드 테일러의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난 네가 이기기를 바란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 물었더니 "내가 열심히 운동시켜서 아놀드 테일러가 챔피언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다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기분 나쁘다. 그러니 네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키가 크고 팔이 길다. 그러니 너는 실새없이 움직여라. 그럼 넌 이길 수 있다."

그 다음날은 선생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묵고 있던 호텔 사장이 와서는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식사 끝나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겁니다. 사무실로 갔더니 필름 보관소에서 아놀드 테일러가 세계 챔피언이 될 때의 필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산 계단을 열심히 뛰어서 하늘이 도와준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놀드 테일러와 헥토르 카라스키야에게 이겼을 때는 모근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늘이 감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 '한방'이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권투 시합하는 거 보면 선수들끼리 시합 전에 서로 눈싸움하는 거 중계하면 통해 보셨죠? 그런데 눈 내리끼는 사람이 이기는 거 보셨어요. 시합이 열린 날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죽더라도 타일 던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왜 저, 자식아. 이기고 나서 나하고 트위스트 추는 거야. 알았지?" "예."

여러분, 제가 지더라도 타일 던지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이긴 겁니다. 이것은 항상 정신이 먼저 간다는 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정신이 먼저 가지 않으면 몸은 항상 편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신으로 놀기 좋아하는 육체를 깨워서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시합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권투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박 대통령이 제게 체육관을 마련해달라고 비서에게 지시하면서 금일봉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8월 15일에 육영수 여사가 피살당하면서 체육관 마련도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적지에 가서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주위에서는 대통령 만나고 잘 나가니까 제가 1차 방어, 2차 방어전만 끝내고 나면 저를 지도했던 트레이너가 기고만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위원회에서 트레이너였던 김준호 선생을 영구 제명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그저 남 잘되는 걸 못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후손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붉은악마 보세요. 응원하고 난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삼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후손 때문에 사는 겁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니까 결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 잘됐을 때 제일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치고 배울 것이 뭐냐. 옆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실력이 있다면 박수 쳐주고 장려해주는 겁니다. 실력있는 사람이 실력있는 자리에 앉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권투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권투의 매력이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앞에 '위'자 하나를 더 붙여서 '위대한 한국'이 되는 겁니다. 붉은악마 이야기를 했지만 스페인은 월드컵을 개최한 이후 부유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세계 4강에 들었으니 202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4강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5천만 인구가 아테네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중국 인구를 12억으로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24배인데, 그럼 중국은 우리보다 24배 많은 216개의 금메달을 획득해야 우리와 같아지는 겁니다. 지난 WBC 야구 보셨죠. 김인식 감독님 명장입니다. 세 번을 모두 이기면 어떡합니까. 한 번 저주자고 해서 진 겁니다.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팀만 3,0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30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칭찬해줄 수 있는 민족이 되면 우리 스스



로가 신납니다. 일등, 이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챔피언과 일등은 다른 거죠. 인생을 살든 권투를 하든 높고 올라가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로 일등, 이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뤄져

여러분, 저를 두 번이나 KO 시키고 이긴 알폰소 자모라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재기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재기해서 두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제가 만약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재기할 수 있었겠어요. 질 줄 알아야 진정한 승리의 단맛을 아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즉, 포기는 없다. 왜? 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한다',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했다', '못했으나 나는 한다', '그들이 실패했지만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자모라에게 두 번이나 KO로 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떠나는 날 그가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네가 만약 편지가 있었으면 내가 9회전에서 KO로 졌을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졌을 때 인정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 오늘 이후로 핑계대지 맙시다. 졌으면 졌다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저는 자모라에게 그 기질을 배운 겁니다.

제가 74년 김포공항에서 남아프리카 더반까지 갈 때 권투위원회에서 꽃다발 하나 걸어줬습니다. 가서 시합해보야 질 거 뻔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미군부대에서 식당하는 아줌마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후손이 우주의 챔피언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겁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제가 헥토르 카라스키야와 시합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격이고 기관총으로 탱크를 쏘는 격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 아침에 체중 통과하고 시합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선수가 저한테 와서는 이번 시합에 어느 한쪽이 KO로 질 때까지 시합을 진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경기 전날 세 번 다운 당하면 자동 KO로 서로 합의했는데 그 날 따라 죽을 때까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심판을 만났어요. 11전 11승 11KO의 전적을 가진 카라스키야와 시합을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Good luck, today(행운을 빈다)"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Don't worry. I'm ready for this fight(난 이 시합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돼있다)" 그리고는 한 술 더 떴죠. "You know U.S. Army stays in Korea(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did you learn

English(너 영어 어디서 배웠나)?" 제가 그랬죠. "High School(고등학교에서 배웠다)" 이 심판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아 사람이 영어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합에 들어갔는데, 저 네 번이나 다운 당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카운트를 얼마나 천천히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네 번 쓰러지고 일어나 이긴 겁니다. 이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전 5기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희망의 내일이 올 것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기려고 마음 먹으세요. 저는 한때 폭력배 해결사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1999년 2월 9일, 그것도 멀리 파나마에 가서 카라스키야 시의원을 만나고 왔더니 몇 일 후에 제가 폭력배 해결사로 나오더군요. 적지에 가서 챔피언 두 번이나 하면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폭력배 해결사 노릇하고 있는데 누가 권투를 시키겠어요. 결국 1년 7개월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았습시다. 그러나 당시 KBS 복싱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식당하고 있었는데 문 닫았어요. '홍수환의 권투교실' 하고 있었는데 문 닫았습니다. 강의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년 7개월이 17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눈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 알고 보니까 그 짓 하면서 살았더라' 하며 쳐다보는 눈들. 제가 그 때 이 모든 것을 참지 못했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 포기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강연을 강원도 공무원연수원에서 춘천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긴장되고 진땀이 흘러서 어떻게 강연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강연 끝나고 공무원들이 기립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거울 앞에 섰는데 그 안에 '홍수환'이 있어요. 거울 속에 홍수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넌 네 번 쓰러졌다 일어났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네가 그냥 이겼으면 다 잊어버렸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네 번이나 다운을 당하던 그 경기에서 왜 룰이 변경됐겠습니까. 제가 싸워서 질 게 뻔한데 노력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으로 포기했다면 그 날 절대 무제한 다운이라는 룰 변경은 없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이제까지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때가림을 잘 하는 사람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세계 최강의 나라 4강에 진입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후손이 잘 되는 우리나라, 내 조국, 모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무엇보다 고쳐야 합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기본이예요. 조금은 어렵더라도 본분을 찾고 기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내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같이 가서 뭉치는 겁니다. 옆 사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남들이 배 아프면 우리는 배 안 아프다. 너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아직도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 '대한국민 만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국민인 여러분 옆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자기만의 偶像을 버려라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자기초월의 욕구가 참인간이 되게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령 선생은 디지로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땀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천신만고의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성공의 금자탑을 아낌없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변혁의 시대, 디지로그 시대를 승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대변혁의 위기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Change or Die!" "변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무서운 폭언이다.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에 익혀온 행동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을 버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검은 피부색 때문에 외딴 우물가에 가 혼자서 유리조각으로 검은 피부를 벗겨 보려고 애쓰는 눈물겨운 흑인소녀의 모습에서 악습에 못 견디는 우리의 그릇된 자화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딸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을 살해하는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쓰고 88년 풀리처상, 9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흑인 여류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최근 미국 신문들로부터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비극적인 흑인소녀의 검은 피부색같이 우리들의 자화상을 검게 뒤덮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이 지난날에 이룩해 놓은 '실패의 자화상' 또는 '성공의 자화상'이라는 우상이 아닐까.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조선일보 5월 11일자 아침논단에서 지난 60년간 40~50년대의 '건국의 시대', 60~70년대의 '산업의 시대', 80~90년대의 '민주화의 시대'를 숨가쁘게 살아오면서 엄청난 성장신화를 창조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21세기를 맞은 한국의 향후 과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라고 했다. 그리고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분열과 갈등, 혼돈과 좌절을 극복해야 하는데, 反선진화사상과 세력이 바로 극복의 대상이라고 했다. 결국 선진화로 가는 길은 선진화주체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건국의 신화, 산업화의 신화, 민주화의 신화 등 성공의 신화 속에 굳게 자리잡은 자화상의 우상과 오만을 버려야 한다. '중국의 自主創新 전략'이라는 특파원칼럼에서 송의달 중앙일보 홍콩특파원이 충격적으로 보도하고 있듯이 '성장의 신화'라는 자화상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국 산업계와 정부가 自主創新의 새 깃발 아래 경쟁국 따라잡기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보라.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의 정신으로 오만과 자화상의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선진화의 길로 매진하는 것이 대변혁의 시대, 초경쟁의 시대를 패자가 아닌 승자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人間**



아브라함 매슬로의 '인간욕망의 5단계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첫째, 생리적 욕구에 지배받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의식주의 욕구나 성적 욕망같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욕망이다. 물질적 소유욕망도 여기에 속한다. 더 먹고 싶은 욕망, 더 즐기고 싶어하는 성욕 등 생리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누리기 어렵다.

둘째, 인간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 공포 등을 피하여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모든 법과 사회제도 심지어는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도 인간의 안전욕구의 충족을 위해 생겨난 것들이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셋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어느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지배받고 사는 존재이다.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 구성원들의 보살핌, 관심,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보다는 여러분(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이 말해주고 있듯이 속하고 싶은 집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넷째, 인간은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평가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자기존중의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인권존중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대중 속에 묻혀버린 무가치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았듯이 天上天下에 唯我獨尊의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중심', '인간존중'의 리더십정신이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자기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옳은 길일 것이다.

다섯째는 자기실현, 즉 자기완성의 욕구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불안감, 불만족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전의 네 가지 욕구가 원한만큼 충족된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완전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이번 달 표지인물인 이어령 선생은 인터뷰를 하면서 여섯 번째 욕구로

10년을 젊게 사는 음악치료학

임미경 대불대학교 음악과 교수



교육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첫인상이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 특히 정치인이나 경영인들을 만나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가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특강을 부탁해왔을 때 시대적인 여유로움과 문화적 향상을 느끼곤 한다. 전자의 여유로움은 기업이 잘 돌아가는 여유로움의 뜻도 있겠지만 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CEO들의 마음의 여유로움이기도 하다. 후자의 문화적 향상은 사원들에게 문화를 통해 애사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수준 높은 CEO들이 늘어나고 있음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이 있지만 모든 것은 문화의 변화 속에 쉽게 변해간다. 하지만 청각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창과 청음이 있는데 시창은 만들어가지만 청음을 깨이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화음의 저항력이 없는 악기인 피아노의 예를 많이 들고 있다.

음악교육 창시자들은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에밀 자크 달 크로즈는 "음악은 정신적 치료를 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독일의 칼 오르프는 "음악은 개인에 대한 즉흥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헝가리의 줄탄 코다이는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내 청을 개발하여 자신의 잠재된 지적 발달 그리고 정서적 발달을 도모시켜라"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음악이 인격형성에 대단히 중요함을 발표하였다. 이

렇듯 음악은 우리가 사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내 성격에 맞는 음악은, 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음악은,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은 어떤 음악들인지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음악을 들어 보라. 마음의 여유를 찾아 원활한 인간관계와 자신의 얼굴에 비취진 인상 그리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기본적인 기질이 있다.

1. 우울질

내성적이며 생각이 많고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어둡고 우울한 면도 있지만 아주 재능이 많고 천재적인 경우가 있다.

· **감정** - 음악, 문학, 예술을 사랑한다. 작은 것에도 민감하고 예민하다. 번덕스럽고 우울하다. 섬세하며 희생정신이 있다. 실망을 잘 한다.

· **타인관계** - 친구를 조심스럽게 사귀지만 한번 사귀면 오래 간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다. 미움이나 불만을 참고 있다가 갑자기 분노를 터트리기도 한다. 타인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오래 간다.

· **활동** - 신중하며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다. 완벽주의이다. 논리적, 분석적인 일을 좋아한다. 새로운 일의 시작을 주저한다.

임미경 교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졸업 / 비엔나 콘서바토리 석사 / 체코 부르노 시립 콘서바토리 박사 / 선화·선화예고 출강 / 수원대 대학원 피아노 교수학과 출강 / 서초 열린포럼 회원 / 3640 지구 한미로타리 위원장 / 전문직 여성들의 모임 백합회 회장 / 음대교수모임 음사협 고문 / 저서 : 성공적인 피아노 교사를 위한 음악경영

이론적이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



많이 들어야 하는 음악))

쇼팽곡 전부가 좋다. 그 중에서 녹턴이나 뱃노래 또는 발라드가 도움이 되며,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멘델스존의 론도 카푸리치오, 어린이 정경, 슈베르트의 방랑환상곡, 리스트의 순례연보 중 오베르만의 골짜기, 탄식,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 그리고 푸가도 매우 좋다.

2. 점액질

느리고 안정적인 성격이며 이기적인 면도 있다. 꾸준하고 평화롭다. 대인공포나 무대공포가 있으며, 칭찬 받기를 좋아한다.

- **감정** - 침착하고 믿음직스럽다. 엄세적이며 작은 일에도 염려한다. 명랑 유쾌하여 친구를 잘 사귀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다. 친절하다.
- **타인관계** - 꾸밈없고 유머가 있어 같이 있는 것이 즐겁다. 친구가 많다. 이기적이고 인색하다. 우월감이 있다.
- **활동** -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다. 단정 능숙하다. 계획성이 있다. 우유부단하다.

많이 들어야 하는 음악))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뱃노래,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6번, 쇼팽의 야상곡 20번, 왈츠 1번, 강아지 왈츠, 폴로네이즈, 헨델의 사라망드, 드보르작의 둠키,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베토벤의 월광, 열정, 발트시타인,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을 들으면 좋다.



3. 담즙질

외향적이며 성취욕이 강하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이라 항상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하다.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꾸준하지만 미적 감각이 둔하고 남을 잘 탓한다.

- **감정** - 자신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다. 두려움이 없고 대담하다. 의지가 강하고 자발적이다. 남의 감정에 민감하지 못하고 동정심이 없다.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낸다.
- **타인관계** -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남에게 용기를 준다. 타인의 결정권을 침해한다. 용서해 주지 않고 복수심이 있다.

- **활동** - 훌륭한 행정가이며 추진력이 있다. 비상시에 신속하고 대담하다. 직관력이 예리하고 머리가 비상하다. 목표를 세우고 도달한다. 독단적이다. 사업에만 시간을 낸다.

많이 들어야 하는 음악))

베토벤의 템페스트, 비창, 고별, 엘가의 사랑의 인사, 쇼팽의 전주곡 1, 2집, 폴로네이즈, 빗방울 전주곡, 모차르트의 소나타 K313, 슈만의 아베크변주곡, 나비,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라벨의 물의 요정,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비발디의 사계,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12번, 브람스의 왈츠 15번, 하이든의 세레나데 등이 좋다.



4. 다혈질

외향적이고 사회적이며 어디에서든 분위기 메이커이다. 감정의 기복이 크며 좋고 싫고가 분명하다. 자신의 노력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가끔 시간낭비의 경향이 있다.

- **감정** - 설득력있는 대화를 한다. 직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즐기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다. 감정변화가 많다.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 **타인관계** - 유쾌하고 낙천주의이다.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다. 배려할 줄 안다. 의지가 약하다. 약속과 의무를 가끔 잊어버린다.
- **활동** -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에 쉽게 뛰어든다. 일을 즐긴다. 열정이 있다. 조직성이 없다. 목적의식이 결여될 때가 있다. 일을 끝까지 매듭짓지 못할 때가 있다. 대화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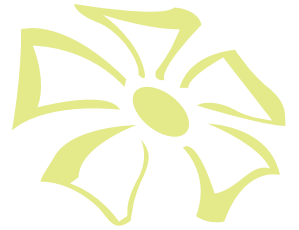
많이 들어야 하는 음악))

쇼팽의 녹턴, 스케르초,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생상의 동물사육제,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즉흥곡, 드보르작의 신세계교향곡, 바흐의 샤콘느, 라벨의 볼레로, 베토벤의 소나타 32번, 몰레방앗간의 아가씨, 모차르트의 소나타 전곡, 브람스의 파가니니를 위한 변주곡, 리스트의 탄식 등이 좋다. 이런 곡들은 마음을 움직이고 힘든 시간들이 평화를 찾는데 어떠한 친구보다도 많은 감명을 줄 것이다.

차안에서 눈을 감고 혹은 자신만의 사무실 공간에서 자신에게 맞는 클래식음악을 흐르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청각의 변화로 창의성있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며, 혼자라는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털고 10년 전의 젊은 당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화한 표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심갑보 삼익THK(주)대표이사 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4월 28일 대통령으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 받았다. 임기는 2009년 4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 경영혁신팀은 지난 5월 5일 삼성석유화학의 3대 혁신 활동인 고객만족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 경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적용한 사례를 담은 혁신도서 <감동에 불을 붙여라>를 발간하였다.



• **김우정 풍류일가 대표**는 국내 최대 문화마케팅 기업인 풍류일가를 이끌고 있는 문화마케팅 리더로 <문화마케팅-위대한 기업의 선택>을 펴냈다. 저자는 책에서 다양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마케팅 성공법칙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 **(주)대교(회장 송자)**는 미국 정규학교 읽기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눈높이스토리영어'와 '눈높이스토리폰영어'를 출시하였다. 눈높이스토리영어는 유명한 동화, 단편소설, 논픽션 등 풍부한 읽기자료를 단계별로 제공해 이해와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눈높이스토리폰영어는 외국인 강사와 주1회 10분간 전화를 통해 스토리북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지난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범국민운동 '육아데이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여 '엄마·아빠 책하고 놀아요!' 특별이벤트를 실시하였다.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지난 5월 9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 중인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의 찌트라 폰 테카찬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태국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은 최근 앞으로 그룹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대형 행사로써 지난 4월 24일 가진 환경경영선포식과 5월 3일 개최된 웅진 R&D 센터 착공식을 치렀다.

• **송병순 (주)아리코 회장**은 본격적인 사업 활동의 첫무대로 지난 5월 25일 팔당대교 남단 하남IC에서 '시범포장'을 선보였다. '표층가열 현장 재생공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이번 시범포장으로 아리코는 친환경, 저비용, 고품질 도로용포장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물품 재사용을 통해 기부와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지난 5월 4일 한채방 3호점인 광화문점을 오픈하였다. 한편 광화문점은 명예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한국다이하이엔트 류무중 대표이사**의 기부금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 **이채욱 GE코리아 회장**은 자신의 저서 <백만불짜리 열정>으로 얻은 인세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 '샐러리맨의 성공 신화'로 불리는 이 회장의 책은 대학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 책을 주제로 독서 토론회를 가질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5월 2일 올해 농협문화복지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400명에게 총 7억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 **일양약품(대표 유태숙)**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코엔자임Q10' 함유 종합영양제 '엘코텐시 연질캡슐'을 신발매하였다. 이 제품은 항산화작용으로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코엔자임이 함유된 종합영양제이다. 특히 이제품은 코엔자임Q10과 함께 초산 토코페롤 등의 비타민도 함유하여 면역체계가 약한 분과 체중의 증가로 근육이 약해진 분, 피부탄력의 노화를 걱정하는 여성과 혈행 장애로 인한 허약 체질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정보보호부문 국제인증인 'ISO27001'을 은행권 최초로 획득하였다. 이번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

정한 국제보안표준규격으로서 심사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정보보호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인증이다. 따라서 이번 인증을 통해 기업은행의 정보보호관리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주)동서(대표이사 김상헌, 박헌기)**는 탄산을 첨가하지 않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레모네이드 '리치스레모네이드'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오리지널 레모네이드로 새롭게 선보이는 상큼한 레몬맛의 저자극 음료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레모네이드 음료가 음료군의 커다란 분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 인기가 높은 음료군을 형성하고 있다.

• **삼화페인트공업(부사장 윤석영)**이 분체도료회사인 (주)파우캠을 흡수 합병하였다. 파우캠은 1996년 시화공단에 설립된 분체도로 전문회사로 2005년 매출액 161억원의 분체도로 시장에서 3위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화페인트공업의 계열회사이다. 회사측은 합병 후 생산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생산량의 증가, 원가절감 등 채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파우캠의 공장용지를 활용하여 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먼타임스(사장 신숙희)**는 지난 5월 25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브랜드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사)21세기여성CEO연합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우먼타임스 주최 하에 매년 열리는 행사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최신옥 한미콘소바토리 대표이사**의 장녀 자원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 시 : 6월 17일(토) 낮 12시
- 장 소 : 임페리얼 팰리스호텔(구,호텔 아미가) 7층 셀레나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용균(전 한국자산공사 부사장)** 회원께서 지난 5월 15일 오전 6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규회원



김민수 (주)메타브랜딩 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8-11 호성빌딩 3층, 4층
 · 전 화 : 02-334-0500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은영 국무총리실 사무관(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전 화 : 02-597-7055



조달현 (주)두림환경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55-1 푸림아이원플러스 B동 1930호
 · 전 화 : 031-707-3900
 · 추천인 : 강민지 월간 골프가이드 사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	6월 1일
(주)태창가족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CJ시스템즈	김일환 대표이사	6월 1일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6월 1일
世界平和 超種敎 超國家 聯合	전선희 평화대사	6월 1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기네스리그룹	이왕열 회장	6월 5일
(주)대양파이프	곽창선 회장	6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	6월 7일
(주)테크노랜드	서정환 사장	6월 13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 17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대성광업개발(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 27일

■ 소모임 소식

- **지중해클럽**은 5월 정기모임을 지난 5월 13일 파주 헤이리 북하우스에서 지중해클럽 음악회를 가진 후 근사한 저녁식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 5월 모임은 지난 5월 22일 최우영 성원개발 사장 자택에서 가든파티로 이뤄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주)주택문화사 사장)** 5월 월례경기가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에 한양 C.C에서 있었습니다.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 한국외교협회 고문)** 5월 모임이 지난 5월 24일 오후 6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동향 및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흥인기 한국증권연구원 고문께서 미니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기업동우회 2그룹 다락회(회장 박세직 / 재향군인회 회장)**는 지난 5월 2일 서울클럽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6월 골프모임을 6월 13일(화)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 지지체소식

-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가장 성공한 박물관으로 공인**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가장 성공한 박물관으로 인정받아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의 전국박물관 평가에서 내부 컨텐츠가 우수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공한 박물관으로 인정받아 지난 5월 22일 '제9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그동안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사를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산 교육·체험학습장의 요람으로써 3,000여평의 전시공간에 5만 여점의 유물을 소장, 전시해오고 있다.
- **장수군 수분마을,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
금강의 발원 뜬봉샘이 자리한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마을이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수분마을의 뜬봉샘 계곡에 두릅나무와 취나무, 가시오가피가 자생하고 용담, 금강초롱, 산작약 등 야생화가 군락을 이룬 가운데 자작나무가 조림되는 등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인증 받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장관 명의의 지정인증서 수여와 지정지역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환경관련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무실이전안내

- **주오일넷(주)**(김봉중 대표이사, 이용원 사장)
 - 이전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3층
 - 전 화 : 02-554-3220
 - 팩 스 : 02-554-5680
- **한국FPSB**(윤병철 회장)
 - 이전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 전 화 : 02-753-3497(변동없음)
 - 팩 스 : 02-3276-7620
- **열린사이버대학**(장성근 총장)
 - 이전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허브빌딩 B동 3층
 - 전 화 : 02-2197-4101
 - 팩 스 : 02-2197-4114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LMI & YOU

15년의 벽을 깨고 생산성 65% 향상시키다

오창재 (주)정보실업 사장

한 집안 삼형제가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과정을 이수한다. 얼마 전 정보실업 오창재 사장과 오정재 부장이 68기로 EPL을 수료했고, 오동훈 STX 팬오션 과장은 지금 70기에 참가중이다. 선친의 권유로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EPL의 목표설정 과정을 통해 현업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는 이야기를 오창재 사장으로 부터 직접 들어본다.

선친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와 제 동생이 함께 LMI의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제가 원하던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EPL이 목표달성 프로그램으로써 명성이 높은 것을 알고 있었고,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직원 개개인에게 목표를 세우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시작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그 동안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했지만 말 그대로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도 사장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나 봅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겨주고 뒤에서 기대하고 지지해주는 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회의 시간에 얼굴을 붉히는 논쟁이 사라지고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경청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라인 하나를 정해서 생산량을 늘여보기

로 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생각은 해보았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를 정해 실행하자 전에는 최대 130개를 만들어 내던 기계에서 같은 시간에 200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깜짝 놀랐지요.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생각이 만들어 낸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안 된다는 생각이 깨지면서 생산량이 65% 올라가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표로 시작했지만 점점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를 하나둘씩 이뤄감에 따라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지는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LMI 교육안내

1. 숙명여대,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과정 6기 개강
 - 일 시 : 5월 4일(수) 오후 4시
 - 대 상 : 숙명여대 교수 10명
 - 지 도 : 송항섭 LMI 수석 FT
2. 제74기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과정 개강
 - 일 시 : 5월 29일(수) 오후 7시
 - 대 상 : CEO 등 각 분야 리더 및 퍼스널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 지 도 : 안효열 LMI FT
3. 양양군, '성공하는 리더의 개인 생산성(EPP) 과정 개강
 - 일 시 : 6월 1일(목) ~ 12월 21일(목)
 - 대 상 : 양양군 공무원 60명
 - 지 도 : 안효열 LMI 마스터 코치
4. 노동연구원,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수료식
 - 일 시 : 5월 18일(수)
 - 대 상 : 최영기 원장 등 10명
 - 지 도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장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보다 나은 사진을 얻기 위한 촬영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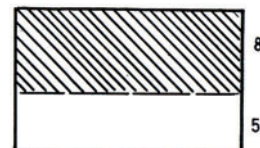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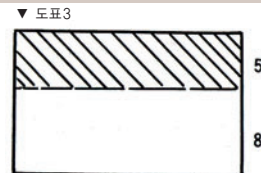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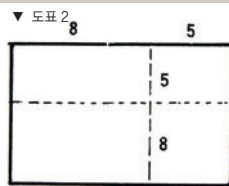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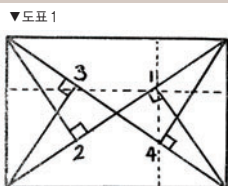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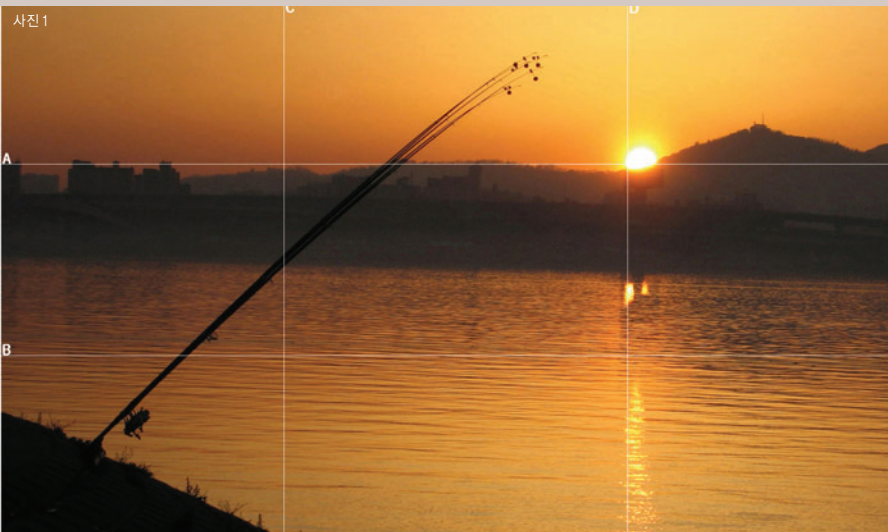
오경근 베로니카 카스 코리아아카데미 원장

나날이 변해 가는 산과 들의 신록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셀레이게 만든다. 잠시 교외로 움직인 발걸음에 아름다운 현지 풍경을 담아올 수 있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인물사진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인물사진 촬영 노하우에 풍경사진의 노하우를 더해 보자. 지난 호에 이어 본원 회원이면서 대한프로사진가협회 교육이사를 역임한 오경근 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풍경을 앵글에 담기 위한 촬영 노하우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사진 1은 황금분할법에 의해서 공재선이 2/3에 위치한 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진에서 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1의 3, 1, 2, 4에서 이 사진은 해가 1에 있습니다.

도표 2는 2/3, 도표 3은 1/3 공재선이 화면의 1/3이나 2/3에 있어야 합니다. 사진 2, 3, 4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2, 3, 4를 보시면 인물이 선의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이 사진은 얼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경사진

▶ 구도

피사체로 정한 테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법과 형식이 구도이다. 그러므로 피사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도는 피사체의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히 결정되어야 하나, 그것이 미리 정해진 법칙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 화면의 단순화

주제를 강조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은 될 수 있는 한 단순화되고 간단명료하며 통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면의 중앙에 전주나 나무가 있으면 화면이 양분되어 주제의 인상을 약화시키고, 배경이 복잡하면 화면이 산만해진다. 그러므로 복잡한 물체는 될 수 있는 한 화면에서 삭제하고 배경도 주제를 강조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 악센트

화면의 단순화는 자칫 잘못하면 사진을 단조롭게 만들기 쉽다. 이 단조로움을 깨뜨리고 화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제의 인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악센트인데, 이것을 부분 강조의 수법으로 쓰게 된다. 형태나 색조 어느 쪽이든 단조롭게 펼쳐진 화면 안에 한 점 주위의 양상보다 뚜렷한 콘트라스트(Contrast)를 이루게 되면 그 목적이 이뤄지게 된다.

▶ 원근감

풍경사진에서는 근경, 중경, 원경을 적당히 넣어 원근감을 나타냄으로써 화면의 깊이를 보이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점은 전경에 맞추고 중경과 원경을 흐리게 하든가 전경, 중경, 원경을 다 같이 선명하게 찍든가 하면 된다. 다만 전경만을 흐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전경이 흐리면 눈의 시발점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맑은 날의 풍경사진에서는 조리개(f)를 11 정도로 조여 주면 만족할 만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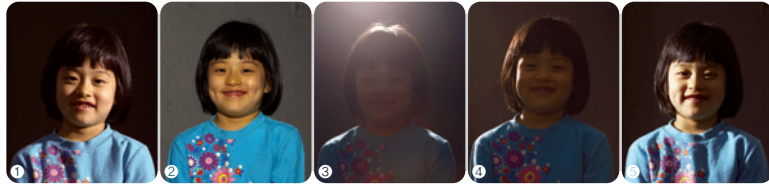
▶ 공간(스페이스)의 분할

화면은 색조와 선에 의해 여러 면적으로 나누어진다. 풍경사진에서 스페이스를 중앙에서 분할하는 것은 화면에 두 개의 대립감을 낳게 하여 통일감을 잃게 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러한 사진에서는 지평선을 1:3, 2:3, 3:4의 비율로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땅위의 인물이나 나무에 약간의 약동감을 내고자 할 때는 지평선을 화면의 아래쪽에 오도록 낮추는 것이 좋다.

▶ 카메라 앵글

소형 카메라는 촬영 각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진의 내용을 효과적

1.사광 / 2.순광 / 3.역광 / 4.반역광 / 5.측광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메라 앵글을 잘 활용하면 사진에 박력(迫力)과 동적(動的)인 면을 살려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체로 양각(仰角, Low angle) 촬영을 하면 화면에 약동감을 주고, 부감(俯瞰, High angle) 촬영을 하면 안정감을 준다.

▶ 라이팅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채광법(採光法)을 말한다. 빛이 피사체의 정면을 비추는 경우를 순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광선상태는 밝고 고무 비취 물체를 촬영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유리하나, 새도(Shadow)가 적으며 전체가 한결같이 밝게 찍혀 변화가 없고 평탄한(Flat) 사진이 된다. 이에 반해 빛이 옆으로 비스듬히 오는 사광(斜光)에서는 새도와 하이라이트(Highlight)의 비율이 3:7로 그들이 생겨 윤곽이 배경에서 떠올라 보이게 되며, 하이라이트에서 중간톤(Halftone)을 거쳐 새도에 이르는 빛의 계조(Gradation)가 가장 많아 사진에는 가장 이상적인 광선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도와 중간톤의 묘사가 불충분하면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이 되므로 노출은 그늘 부분을 표준으로 맞추면 하이라이트, 하프톤, 새도의 톤이 잘 나타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빛이 렌즈의 앞 방향에서 피사체의 뒤를 비추는 광선상태를 역광(逆光)이라 한다. 빛이 사광에서 역광으로 돌수록 하이라이트가 줄고 새도가 많아져 명암의 대조가 강한 힘있는 사진이 된다. 순광일 때는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 없었던 사물도 역광에서 다시 보면 면의 굴곡(屈曲)과 요철(凹凸)이 뚜렷한 좋은 피사체가 되는 경우도 많다. 역광에서 그늘 부분의 세부(細部)가 잘 나타나게 찍으려면 적어도 정면광 촬영 때 보다는 4배 정도 노출을 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순역광보다 반역광 상태가 더 많이 이용된다. 이 경우 명부와 암부의 비가 3:7 정도이므로, 암부의 세부묘사를 위해서는 정면광 때보다 노출을 3~3.5배 더 주어야 한다. 역광이나 반역광으로 찍으면 피사체의 윤곽에 델리케이트(Delicate)한 라인 라이트(Line Light)가 생기므로 매우 흥미롭고 깊은 맛과 무게를 낼 수 있다. 이 때 라인 라이트를 잘 살리려면 검은 산이나 물체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심미안(審美眼)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진작가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人間)



오경근 원장

1941년 생 / 1978~97년 아기사진 개인전 8회 개최 / 서울인상사진연구회 회장 / 대한프로사진가협회 교육이사 겸 교육연구위원장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프로필, 베이비, 가족, 리터칭 강의 / PPA 1996~2000년 참가 / 2001년 PPA LOAN Collection 수상 / 오경근 리터칭 교실 운영

중국의 신농촌건설을 위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한다

본원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 나아가 인류평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포럼 개최, Global Koreans Network 구축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화와 국제협력을 이루어 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원은 중한해외연수원(원장 김영옥)과 함께 2004년부터 중국 길림성의 기업 경영자 및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길림성 정부의 시장 및 군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3차 연수팀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수팀의 방한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연수팀은 5월 10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새마을운동과 정부의 역할, 새마을 리더의 양성과 성공사례, 농촌의 지식정보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름 일정으로 진행된 '중국 길림성 새마을운동교육팀'의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새마을운동의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4월 26일~30일)

중국 길림성 정부 당서기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길림성 새마을운동교육팀' 38명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입국하였다. 연수팀은 바로 다음 날인 27일 경희대를 방문해 홍보영상 시청과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았으며, 오후에 청계천을 방문해 청계천의 역사가 담긴 전시시설을 관람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개복공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8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조순 본원 명예회장의 "한국경제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연은 정종택 충청대 학장이 "새마을운동의 지도이념과 배경 및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 학장은 강연 중 물구나무서기를 보여줄 정도로 건강함을 과시하며 열띤 강연을 해 연수단의 큰 박수를 받았다.

강연 둘째 날인 29일에는 정갑진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모시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원리 및 실천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후 강연에서는 양병무 본원 원장이 "새마을 리더 양성 및 성공사례"라는 강연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해 연수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에서의 첫 주말을 맞이한 연수팀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본회의장 및 전시장을 둘러보고 한국 국회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았다. 오후에는 유기농법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의 문당리 마을을 찾아 유기농법과 농촌관광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농촌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국의 농촌발전에 대한 이해(5월 1일~10일)

5월 1일 연수팀은 1박 2일 일정으로 분당에 위치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소하였다. 이 기간 연수팀은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의 "새마을운동과 정부의 역할", 김창희 새마을연수원 연수부장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의 조직체계와 추진방법", 김신규 경기도 의원으로부터 "새마을건설의 성공사례분석", 이명수 농림부 차관으로부터 "한국농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었다. 또한 연수원 내 새마을역사관을 방문하여 관련 전시물을 둘러보는 등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림교육연구원으로 돌아온 연수팀은 이질현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한국 새마을운동과 농촌의 발전상황", 오지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으로부터 "농업농촌의 미래와 농업의 지식정보화"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한국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연수팀은 농협대학을 방문하여 이진호 농협대 학장으로부터 "한국 농협조직의 발전과정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캠퍼스를 둘러보았으며,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농협의 업무 소개와 함께 농업박물관을 관람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어진 6일 강연에서는 유상오 경향신문사 전문위원이 "한국 새마을운동과 일본 농촌개발에서 본 중국의 새마을 건설"이라는 강연을 통해 중국의 신농촌건설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오후 강연에서는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9일 연수팀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김영호 원장과의 대담시간을 갖고 전시관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연수팀은 휴일 및 주말을 이용해 청와대와 경복궁 등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경제성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보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연수팀은 5월 10일 장춘으로 출국하였다.



▶경희대를 방문한 연수팀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등 열정적 강연을 해주시는 정동택 학장



▶개강강연을 하고 있는 조순 회장



▶연수팀은 대림교육연구원에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였다



▶양병무 원장의 리더십 강연은 연수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당리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 연수팀



▶새로운 수익창출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문당리 마을을 찾은 연수팀



▶1박2일 일정으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소한 연수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소해 교육을 받고 있는 연수팀



▶이어지는 강의일정에도 연수팀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농협대학을 방문한 연수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연수팀은 김영기 원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원에서 아외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팀



▶연수팀은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였다

* 중국 길림성 새마을운동교육팀의 한국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회사사 및 강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人間)

세 가지 부(負)의 유산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우리나라 경제는 적어도 수도권을 보면 이미 후진국이 아니다. OECD에 가입한지가 10년이 됐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소비수준은 미국이 부러울 것이 없다. 다만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에 가보면 모든 것이 수도권과는 다르다. 양극화라는 것이

실감난다.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세계 최고층의 빌딩이 들어선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산에도 들에도 계속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집권 당시 과거로부터 세 가지 부(負)의 유산을 받았다. 하나는 개발연대에 이룩한 압축성장의 유산이다. 선진국이 100년에 걸쳐 성취한 산업화를 불과 30여 년에 압축하여 성취하자니 무리가 많았다. 정경유착, 금융과 중소기업의 낙후, 정부규제의 과다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상당부분의 후유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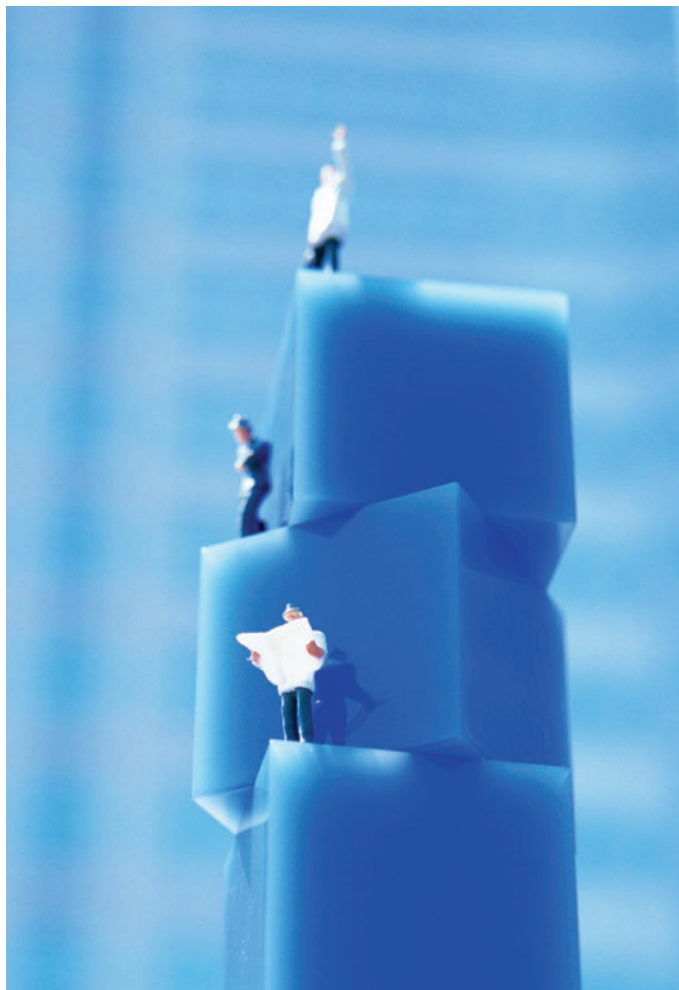
둘째의 유산은 IMF개혁의 유산이다. 나는 IMF개혁을 압축개혁이라 부르려고 한다. IMF개혁은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 공기업의 민영화, 작은 정부의 실현 등이었다. 이것은 그 하나 하나가 대단히 어려운 개혁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쳐 서서히 해야 할 개혁이었었는데, 한국은 이것을 불과 1년 반만에 "완결"해버렸다. 빨리 한 것이 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경제개혁이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결과가 좋지 않다. 결국 한국은 나라의 많은 부(富)가 론스타와 같은 투기회사에 말려서 외국인 수중으로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동력이 간데 온데 없이 됐다.

셋째의 유산은 신자유주의의 유산이다. 신자유주의란 한마디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없애고, 모든 것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 경제를 자유방임(自由放任)하라는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영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이데올로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IMF 이후로는 거의 이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각색되고 있다.

시장경제란 물론 우리가 바라는 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문패를 단 시장원리주의에는 폐단이 많다. 그 폐단은 전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특히 이 사상의 발상지인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경제는 우리에게 못지 않게 양극화, 성장동력의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미국의 소득분배 양극화는 엄청나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로부터 금융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금융회사의 이익과 일반회사의 금융

업무 이익을 합치면 미국의 전 회사 이익의 50%를 차지한다. 이것이 미국경제를 불건전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경제는 모든 것이 잘되고 있고, 그 경제는 영원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의 미국 자본주의는 30년 전의 그것과 많이 달라졌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자기 나라 경제나 남의 나라 경제를 제대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참여정부가 세 가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유산을 탓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자랑스러운 경제운영의 실적을 보이지 못한 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人間**



대교는 세계로 눈높이 수학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2개 나라 어린이들이 대교 눈높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회원 서진희양의 미국대학 입학자격시험 (SAT) 2회 연속
 만점과 뉴욕주립대 연구결과 입증된 눈높이의 뛰어난 학습효과 -
 이러한 교육 노하우 수출과 로열티로 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9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뉴욕주 교육국에선 E·nopi KOREAN을 제2외국어 교재로 승인하고, 뉴저지 Craig School을 비롯한
 미국 내 여러 학교에서 수학 교과서 및 보조교재로 E·nopi MATH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삼익LMS(주)가 본사 이전과 더불어 삼익THK(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무한제어 메카니즘
직선운동 시스템

**SAMICK
THK
LM SYSTEM**

1

삼익THK(주)정신은
고객만족으로 연결되는 *Hot-Line* 입니다.

<http://www.samickthk.co.kr>

도약 21세기, 산업설비 자동화의 기수!

삼익의 반세기에 걸친 경영 노하우와 LM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톱메이커인 일본 THK사가 만나, 2006년 삼익LMS(주)가 삼익THK(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삼익 THK(주)로 거듭나며, 더욱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도약 21세기 국내외 산업설비 자동화와 IT산업발전의 기수로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 큰 성원과 신뢰 부탁드립니다.



 **삼익THK주식회사**
SAMICK THK CO., LTD. 

영업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금강타워 16층)
TEL : (02)3454-0811 FAX : (02)3454-0792

본사 이전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05번지
TEL : (053)665-7000 FAX : (053)581-8272

전국대표전화 : 1588-9931

· 인천영업소 : (032) 812-9354 FAX : (032) 812-9352
· 대구영업부 : (053) 581-3421 FAX : (053) 581-3420
· 광주영업소 : (062) 251-4782 FAX : (062) 268-8494
· 울산영업소 : (052) 273-9941 FAX : (052) 273-9820

· 수원영업소 : (031) 899-9500 FAX : (031) 286-2535
· 구미영업소 : (054) 471-2761 FAX : (054) 471-2763
· 창원영업부 : (055) 285-8472 FAX : (055) 285-8475

· 천안영업소 : (041) 621-0170 FAX : (041) 621-0171
· 대전영업소 : (042) 934-2308 FAX : (042) 934-2307
· 부산영업소 : (051) 329-8555 FAX : (051) 329-8550